

## 기독교 선교콘텐츠로서의 공동체 예전무용 참여 경험

이신영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최문영 연세대학교 강사

종교는 인류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해 온 핵심적 문화소(文化素)이며, 종교는 문화적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하고도 근원적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종교의식에서 무용은 종교적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 내는 몸의 언어로 사용되며 실제적인 종교체험을 위한 가장 좋은 가치를 지닌다(정견진, 2010). 기독교에서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로 이해된다(주승중, 2003).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근본적 욕구를 갖고 있다(Stevenson, 2012).

춤은 단순한 신체적 운동이 아니라 자유 형성 과정이며 해방의 행위로서 예배에 적합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응답하는 행위로서(Happer, 1974, 이신영 2001, 재인용),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몸의 움직임은 기도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강력하고 민감한 소재이다(Deiterning, 2013). 이러한 몸짓은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예배에서 행해지는 모든 동작은 크던 작던 몸을 통해 표현되는 기도가 된다. 교회의 춤동작은 단순했고 종종 원형을 만들어서 춤을 추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했으며 예배의 도구로서 설교나 성경말씀의 이해를 도와주는 매개체, 영·육·혼의 조화를 가져오는 행위, 공동체의 결속시키는 역할을 해왔다(Jones, 2000).

그러나 현대 이르러 선교활동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며 널리 퍼져갔으며 이러한 성장은 예배 관행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하였고 예배 참여자의 협력 없이도 성직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행위가 되어버렸다(Deiterning, 2013). 미국의 예배무용가이자 워십 디렉터인 Carolyn Deiterning, (2013)은 현대 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춤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춤조차도 그 근원(삶의 전체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이제는 삶의 숨결을 표현하기보다 생활로부터 분리되어 공연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교회무용도 예배의식과 예배문화 속에서 표현의 양상을 달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예배의식 속에 활용되지 못한 채 기독교에서의 문화적인 수단으로 대부분 사용돼서 예배의 특별 순서에 의한 찬양집회와 절기행사를 위한 행사적 성격의 보조자로서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지연, 2005; 이정인, 2010:

윤초롱, 2002; 조선하, 박순자, 2016; 정건진, 2010; 최수진, 2016)). 잃어버린 춤으로의 회귀 즉 하나님과 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에 초점한 무용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성경은 성찬, 말씀, 기도, 찬송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예배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배 의식 즉 예배 순서를 예전이라고 하고 예전무용은 예배 의식 안에서 드러지는 무용이라고 정의 내린다(정건진, 2010). 예배의 근본정신은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경험이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써, 이러한 예배의 정신에 따라 회중은 예배의 ‘관중’이 아닌 하나님과 쌍방향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한다(조선하, 박순자, 2016). 무용은 비언어적 표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복음적 메시지가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회중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무용이 공적인 예배 내에서 활용되기위해서 조선하와 박순자(2016)는 기독교무용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개인의 영적체함을 공동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사례의 연구, 그리고 예배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용에 대한 장르 및 기술적 표현에 대한 연구와 기독교무용 전문가의 양성 등 공적인 예배 내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다.

이와 함께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복음전도의 장벽을 극복하기위해 문화선교의 변화 및 선교도구로서의 콘텐츠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최유석, 2022; 이은경, 2016) 개별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사적영역에 접근하기 위하여 문화선교는 기존의 ‘소개’와 ‘보여줌’이 아닌 ‘선택받음’과 ‘관심받음’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최유석, 2022). 공동체 예전무용은 예배 안에 모두가 함께하며 몸을 통해 영혼을 드리는 것으로 ‘공연’과 같이 ‘소개’와 ‘보여줌’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선교현장에서 공동체 예전무용에 대한 체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체 예전무용의 가치 확장성을 탐색하고 기독교선교 콘텐츠로서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에 2024년 8월 5일부터 25일까지 동중앙아프리카 선교에 참가한 전문 사역자 6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선교지에서 1단계 호흡하기 - 2단계 나의 몸감각 느끼기 - 3단계 나와 타인의 몸에 대해 감사하기 - 4단계 몸으로 드리는 기도(절기 예전무용, ‘Jesus remember me’)로 구성된 공동체 예전무용을 함께 실시하고 이후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 경험을 탐색하였다. 자료는 연구자가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나눈 현장에서 작성한 노트와 더불어 이메일, 전화인터뷰 등을 포함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Creswell(2013)이 제시한 질적연구 자료의 분석방법 6단계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범주화하여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한 성장, ‘선교콘텐츠로서의 가치’ ‘공동체 예전무용의 활용’ 4개 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 12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무용이 선교지에서의 미치는 영향력과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선교지

에서 기독교무용컨텐츠가 신체적, 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거룩한 공동체 예배의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동체 예배 콘텐츠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삶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활용하는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의 경험에 주목하여 변화를 확인했다는 점, 선교지에서 공동체 예전무용의 활용 가치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예배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과 증진에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전무용이 활용되길 소망한다. 또한 예배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 성도들을 영적 깊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예배무용으로서의 다양한 예전의식무용 콘텐츠가 개발되어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체험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 되길 바란다.

**핵심어:** 예전무용, 기독교 선교콘텐츠, 공동체, 기독교무용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기독교 선교콘텐츠로서의 공동체 예전무용 참여 경험	발표자	이신영, 최문영
		논찬자 (소속)	강미리 (서울예술신학교 교수)

본 논문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복음전도의 장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안이 논의되는 시기에 기독교 선교(Christian mission)라는 중요한 범주에서 접근하고,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동중앙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공동체 예전무용을 실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무용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복음적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선교지에서 문화선교의 역할로만 사용되었던 현시점에서 예배 의식 안에서 함께 몸으로 드리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이끌었다는 것은 실천적 연구의 중요성을 담은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과 소수가 소개하고 보여주는 기독교무용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콘텐츠로 공동체라는 대중으로 활용하여 파급력을 제시한 본 연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4)”의 말씀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모두가 예배 내에서 몸과 마음을 통해 영과 진리로 함께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 공동체 예전무용을 시도한 매우 중요한 논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지리적 거리감과 언어인종의 간격,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선교현장에서 공동체 예전무용의 체험적 사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예전무용의 가치 확장성을 탐색하고 기독교선교 콘텐츠를 개발하였기에 향후 예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무용 사례연구 발전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선교콘텐츠의 구체적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기독교무용의 다양한 예전의식무용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선교의 현장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전무용을 보급하고 잃어버린 춤으로의 회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체 예전무용을 실시할 때 하나님과 공동체의 온전한 ‘화합’과 쌍방향적 만남의 ‘소통’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음악의 사용유무,

---

동작의 단순함 등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를 시행할 때 어떠한 변수는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진행된 연구는 선교에 참가한 사역자 6인의 참여 경험으로 기독교무용에 대한 인식,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한 성장, 선교콘텐츠로서의 가치, 공동체 예전무용의 활용의 범주에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추후 공동체 일반 참여자의 경험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면 공동체에서의 예전무용을 평신도의 입장에서도 진단하고 탐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자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무용에 관심을 가지고 사례연구를 활용하기 위해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주신다면 기독교무용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무용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서 기독교선교 콘텐츠로서 공동체 예전무용을 개발하고 활용가치를 분석하신 연구자님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독교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과 기독교무용의 다양한 연구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